매일경제

2011년 02월 28일 월요일 A34면 스포츠/문화

<사진 제공=국제 갤러리>

"운명처럼 다가와야 좋은 그림"

문성식 개인전 …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형상화

경북 김천 과수원에서 자란 문성식(31)은 어린 시절 빼어난 그림 실력으로 서울로 '유학'와 서울예고에 진학한다.

상류층 자녀들이 상당수 포진한 '예고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그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삶의 부조리를 고뇌한다. 목표했던 대학에 낙방한 뒤 차선으로 선택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그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인다. 칭찬에 익숙하던 그가 한번도 교수들에게서 주목받지 못한 것이다. 작가 안창홍이 '누드 소묘'를 가르치고 학생들의 그림을 논평할 시간이 됐을 때 그의 그림은 철저히 외면당한다. 그때가 첫 번째 '알'에서 깨어나던 시기다.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5년 만에 개인전을 여는 문성식은 흔히 말하는 '촉망받는 젊은 작가'다.

2005년 스물다섯 살의 나이에 베니스비엔날레 작가로 참여했으니 주변의 관심은 당연하다 싶다.

60점이 넘는 그림이 걸린 전시장에서 만난 그는 베니스 전시를 회상하며 "부담과 심리를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최근 그림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운명처럼 내린다는 걸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그 운명 같은 기회는 1년에 세 번씩 찾아오는데 이번 전시에 출품한 60여 점 가운데 여덟에서 열점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연필로 풍경화를 그린다. 연필 소묘는 밑그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크릴 물감과 섞여 소박하면서도 근본적인 그림의 깊이를 전달한다.

"보통 유화와 연필을 비교하면 유화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필은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데 탁월한 매체입니다." 흑연과 검은 목탄은 심리와 직접적으로 통한다는 게 작가의 소신이다.

연필로 고집스럽게 그린 풍경에는 은사시나무와 자작나무가 빼곡하다. 인물화에는 삶에 지친 탓인지 못생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다.

"노인 표정은 땅의 거친 표면과 비슷해요. 시간이 인간을 훑고 가죠." 그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담담하다. 작가는 대상에 대해 아주 세밀한 묘사를 하는데 사물을 직접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쌓여진 감정을 화면에 투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캔버스 대신 종이를 여러 겹 붙인 장지를 사용했다. '밤의 질감(종이에 아크릴, 144×298cm)'이란 작품은 눈에 보이는 어둠을 물질화한 작품인데 작가가 가장 공들인 작품 중 하나다.

'청춘을 돌려다오'(캔버스에 연필, 53×65.5cm)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마지막 장면에 착안한 작품이다.

어린 시절 잔치에서 춤춘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던 작가는 그 싫었던 기억을 그림 속, 울 것 같은 어린 아이의 표정으로 형상화했다. 전시는 4월 7일까지.

(02)735-8449 이향휘 기자